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 심사위원 명단 유출 '발각'

담당 공무원 심의 하루 앞두고

농협·국민은행 양쪽에 넘겨줘

경찰, 뒷선 개입·금품 거래 등 조사

30년 만에 농협에서 KB국민은행으로 바뀐 광주 광산구의 1급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에서 심사 위원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와 경찰은 뒷선 개입 여부와 금품 거래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금고지정 담당 공무원 A(6급)씨가 심사위원 명단을 1급고 유치 경쟁에 나선 농협과 국민은행 양쪽에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명단을 넘긴 시점은 금고선정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심사위원 9명을 확정짓던 지난달 23일로 알려졌다. 명단만 건넨 국민은행과 달리 농협 측은 일부부터는 당일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광산구는 확인했다.

A씨가 금전 이익을 대가로 은행에 심사위원 명단을 넘겼는지, 구청 뒷선도 개입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광산구는 5585억원의 기금을 운용하며 일반회계를 담당할 1급고 선정 심의과정에서 은행 측 로비를 막고자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선정했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파문이 예상된다.

광산구가 확인한 결과 명단유출 이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반나절 사이에 은행 양측의 심사위원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 은행 직원이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잘 봐달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광산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광산구 감사관실

은 19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 심의위원(부구청장·국장 등 3명)과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심의 공정성과 외압 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 결과를 즉각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에서 절차상 하자, 불공정 내용 등이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경찰청도 내사에 착수해 금고선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달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일부 심사위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참고인조사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파문이 확산하자 입장 자료를 내어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3일 밤 우리 직원에게 만나서 연락을 먼저 해왔다"며 "당시 식사 접대는 없었으며 A씨가 국민은행에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했다고 고백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4일 오전 지역 조합장 등 10여명이 구청을 방문해 공정한 심의를 요청하

고 사전유출에 대해 항의하자 A씨가 우리에게도 심사위원 명단을 전달 했다"며 "명단은 국민은행에 먼저 유출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산구 제 1급고가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된 것을 놓고 농협이 불공정 평가를 주장하며 법원에 금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농민단체가 비 야적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가족 함께하는 '침단 과학 골든벨' 17일 국립광주과학관 제2기화전실에서 열린 가족과 함께하는 '제1회 침단 과학 골든벨 대회'에 참가한 복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답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광주시 미세먼지 '나쁨' 수준부터 비상저감조치

주의·경보 발령시 종합상황실 운영

광주시가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76 $\mu\text{g}/\text{m}^3$) 수준일 경우 시행했던 비상저감조치를 앞으로 '나쁨' (50 $\mu\text{g}/\text{m}^3$) 수준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6일 시정 9중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에서 자치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협의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나쁨 수준부터 비상저감조치에 나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오염이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무대로 등 27개 도로에 진공흡입차와 살수차를 긴급 투입해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근무시간에는 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22대 진공흡입차가 출동하고, 근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는 민간에서 보유한 살수차를 임차해 오염이 심한 도로 등을 청소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76 $\mu\text{g}/\text{m}^3$) 이상으로 주의보다 경보가 발령되면 도로 살수량을 증대

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관급 공사장(14개소) 조업 단속, 민간 공사장(364개소) 조업시간 조정 등을 권고한다.

광주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는 차량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민간부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정책분과, 시민기업협력분과, 푸른하늘리더단 3개 분과 70명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도 구성하고 26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는 미세먼지 정책수립은 물론 교육, 거리 홍보와 캠페인, 차량2부제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동참 등을 벌인다.

이 밖에도 시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공공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민간부문 차량2부제 시행, 배출가스 과다 경유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 관리 강화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형 지역화폐 카드상품권 우선협상대상자 광주은행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지역화폐인 광주사랑 카드상품권 운영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광주은행이 선정됐다.

'지역화폐(광주사랑 카드상품권) 사업'은 지역 자금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으며,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15일 7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평가위원회는 입찰에 참가한 3개 업

체의 제안을 평가해 광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거쳐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사업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부동산개발업체 사기분양·허위광고 '꼼짝 마!'

광주시 45곳 30일까지 실태조사

광주시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45곳)를 대상으로 30일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에서는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체 준수사항 홍보와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다. 이 법률은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동산개발업체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이다. 건축물 연면적 3000 m^2 이상, 토지 5000 m^2 이상을 개발할 때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으로는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관련법령의 금지행위인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 등을 매매·임대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폭력을 가하면 나에게 돌아옵니다.

학교폭력 로그아웃 친구사랑 로그인

친구야 힘들지... 네 곁에 내가 있어...

혼자 고민 NO! 함께 나눠요~

학교폭력 신고는 117

전남도-산시성 자매결연 사업

中인민대의우호협회 교류협력상

전남도는 중국 산시성(山西省)과의 자매결연 사업으로 중국인민대의우호협회가 주는 '교류협력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상은 지난 17일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漢市)에서 열린 '2018 중국 국제우호도시대회'에서 했다. 지난 2014년 장시성(江西省)과의 우호교류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한데 이어 두번째다.

올해로 6회째인 국제우호도시대회는 중국 내 도시의 국제교류 지원과 국제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2년마다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 도시와 교류 성과가 우수한 해외 자매지역 80여 개 대표단, 중국 31개 광역자치단체와 15개 부성급 도시 6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산시성은 2007년 우호교류를 시작해 지난해 11월 자매결연을 맺었다.

두 지역은 지금까지 고위급 회담,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지역 우수 농수산물 홍보전 개최, 에너지 박람회 및 국제수목비엔날레 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산시성인민대표대회 교류단이 전남 도의회를 방문하는 등 의회 간 상호 방문을 통해 교류 증진 및 농업 분야 기술교류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1993년 저장성을 시작으로 중국 지방정부와 우호교류를 맺어왔다. 지금까지 저장성·장시성·산시성 등 3곳과 자매결연을, 상하이시·장쑤성·산둥성·후난성·쓰촨성·푸젠성·충칭시 등 7곳과 우호교류를 맺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